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Zhizhai-Shulu-Jieti*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론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 표시
2.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2.5 저작년 표시
2.1 표제 표시	2.6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2.2 권수 표시	3. 결론
2.3 저자 표시	<참고문헌>

< 초 록 >

본 논문은 중국 남송(南宋)의 진진손(陳振孫, 1186?-1262?)이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편찬한 해제목록인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자, 저작역할어, 저작년,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직재서록해제』는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13세기에 개인이 편찬한 목록임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목록기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要語: 남송(南宋), 진진손(陳振孫),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목록기술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5년 6월 5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Zhizhai Shu lu Jieti*(直齋書錄解題) which is a annotated bibliography printed by Chen zhen sun(陳振孫),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in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author, published date, word of authorship function, and noteworthy examples. As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at *Zhizhai Shu lu Jieti* was compiled by an individual in the 13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y was found in the fact that it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considerably unified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that period.

Key words: Bibliographical description, Chen Zhensun, *Zhizhai Shulu Jieti*

1. 서론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는 중국 남송(南宋)의 대장서가(大藏書家)이자 목록학자인 직재 진진손(直齋陳振孫, 1186?-1262?)이 푸톈(莆田)에서 벼슬하면서 정씨(鄭氏), 방씨(方氏), 임씨(林氏), 오씨(吳氏) 등의 옛 서적 3,096종, 51,180권을 대상으로¹⁾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의 체계를 모방하여 순우연간(淳祐年間, 1241-1252)에 편찬한 사분법 해제목록이다. 총 56권으로 구성되었다. 분류체계는 사부분류법을 채용하였다. 제1분지인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에서 장주류(章奏類), 문사류(文史類)에 이르기까지 제2분지의 유목 5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였는데, 이를 주제별로 구분해 보면, 경부(經部)에 해당하는 유목은 10개, 사부(史部)는 16개, 자부(子部)는 20개, 집부(集部)는 7개로 구성되었다.

이 「직재서록해제」의 원본은 애석하게도 일실되었다. 「영락대전(永樂大典)」에 수록되어 있지만, 편집에 오류가 있고, 빠진 내용도 많고, 권질이 뒤섞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고전서」를 편수하면서 이 영락대전본을 토대로 내용을 교감하여 다시 22권으로 집찬하였다.²⁾

이 「직재서록해제」의 판본은, 1)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시에 영락대전에 수록된 내용을 저본으로 집찬한 사고관집본(四庫館輯本) 22권, 2) 청대 학자 노문초(盧文弨)가 사고관집본을 토대로 2종의 구초잔권(舊抄殘卷)을 참고하여 다시 편찬한 것으로 현재 상해도서관(上海圖書館)에 소장된 고본(稿本) 「(新訂)直齋書錄解題」 56권, 3) 1987년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서소만(徐小蠻)·고미화(顧美華) 점교본(點校本) 등 3종의 판본이 주류이다.³⁾ 본 논문에서는 사고관집본⁴⁾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다른 판본과 비교했을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23(1)(2003. 2), 73.

2) 丁瑜, “試論「直齋書錄解題」在目錄學史上的影響,” 「寧夏圖書館通訊」 1(1980. 1), 23.

3) 張守衛, “四庫輯本「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2. 6), 33.

4)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5冊(北京: 中華書局, 1985).

13세기에 편찬된 『직재서록해제』가 국내에 유입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⁵⁾,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명고전집(明臯全集)』⁶⁾, 정조(正祖, 1752-1800)의 『홍재전서(弘齋全書)』⁷⁾,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⁹⁾, 한치윤(韓致胤,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譯史)』¹⁰⁾,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¹¹⁾ 등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선비들과 호서가들에게 널리 열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직재서록해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국내 연구로는 서남원이 송대의 사가목록(私家目錄)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직재서록해제』의 판본, 분류와 체례, 목록학 방면의 공헌에 대해 살펴보았으며¹²⁾, 중국 연구로는 『직재서록해제』의 해제, 판본, 평가, 분류, 목록학 사상 등 많은 연구가 나왔으나¹³⁾, 여기에 수록된

-
- 5)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9, 寒竹堂涉筆下, 達句長韻
 - 6) 徐滢修, 『明臯全集』卷9, 奎章總目叙例
 - 7) 正祖, 『弘齋全書』卷161, 日得錄1 文學
 - 8)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卷23, 總經類
 - 9) 丁若鏞, 『茶山詩文集』卷8, 對策
 - 10) 韓致胤, 『海東譯史』引用書目, 中國書 目錄
 - 1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傳類, 經典總說
 - 12)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499-521.
 - 13) 唐潔, 戴永恒, “從小序看陳振孫『直齋書錄解題』的繼承與發展,” 『六盤水師範學院學報』 25(5)(2013. 10), 10-13.
潘遠璐, “『直齋書錄解題』研究綜述,” 『貴圖學刊』 1(2014. 1), 65-66.
王文龍, “試評『直齋書錄解題』的學術價值,” 『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5(2)(2005. 5), 24-27.
王曉慧, “『直齋書錄解題』“解題”成就淺議.” 『科學大衆·科學教育』 721(2013. 3), 149.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23(1)(2003. 2), 72-74.
俞 淑, “『直齋書錄解題』簡介,” 『青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1988. 4), 67.
李明傑, “『直齋書錄解題』的版本學成就探析,” 『圖書館』 6(2005. 6), 47-50.
李 靜, 閔鳳娟, “『中興館閣書目』對『直齋書錄解題』的影響分析,” 『圖書館學研究』 22(2013. 11), 98-101.
張守衛, “四庫輯本『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2. 6), 33-38.
張守衛, “論『直齋書錄解題』分類思想,” 『圖書情報工作』 55(21)(2011. 11), 137-142.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진진손(陳振孫)은 「직재서록해제」에서 수록된 개개 저작에 대해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목록기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직재서록해제」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구하고자 한다.

2.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이하 「서록해제(書錄解題)」라 함)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술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경해류(經解類)에 수록된 「경전석문(經典釋文)」의 목록기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經典釋文 三十卷

唐 陸德明撰 自五經三傳古禮之外 及孝經論語爾雅莊老 兼解文義 廣采諸家 不但音切也 或言陸吳人 多吳音 綜其實未必然 案前世藝文志 列於經解類 中興書目始入之小學 非也

-
- 張守衛, “盧文弨「新訂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雜誌」 29(4)(2010. 4), 77-80.
張守衛, “上海古籍本「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理論與實踐」 11(2009. 11), 61-64.
張守衛, ““互著”, “別裁”兼用始於「直齋書錄解題」,” 「圖書情報工作」 53(11)(2009. 6), 142-145.
張守衛, “論「直齋書錄解題」著錄的內容和價值,” 「大學圖書情報學刊」 25(5)(2007. 10), 83-89.
張學軍, “我國私家目錄學史上的雙璧 - 「郡齋讀書誌」與「直齋書錄解題」,” 「圖書館學刊」 5(2007. 5), 123-125.
丁宏宣, “南宋著名藏書家陳振孫及其「直齋書錄解題」,” 「圖書情報論壇」 23(1994. 3), 73-74.
丁瑜, “試論「直齋書錄解題」在目錄學史上的影響,” 「寧夏圖書館通訊」 1(1980. 1), 23-27.
趙子夫, “陳振孫「直齋書錄解題」的目錄學思想初探,” 「圖書館工作與研究」 8(2012. 8), 87-89.
主父誌波, “「直齋書錄解題」補正,” 「圖書館理論與實踐」 10(2009. 10), 52-53.
朱湘銘, “「直齋書錄解題」斷句錯誤一則,” 「圖書館雜誌」 4(2006. 4), 79-80.
朱天助, “「直齋書錄解題」宋蘭揮藏本考略,” 「中國典籍與文化」 90(2014. 3), 83-88.
許殿才,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遼寧大學學報」 83(1987. 1), 65-66.
胡昌門, “一部不可多得的私家目錄 - 「直齋書錄解題」初探,” 「江蘇圖書館學報」 6(1987. 6), 43-46.
黃燕婉, “「四庫全書總目」誤引「直齋書錄解題」訂正十七則,” 「四川圖書館學報」 184(2011. 6), 94-96.

위의 예를 분석하면, ‘經典釋文’은 표제를, ‘三十卷’은 권수를, ‘唐’은 저자의 소속왕조를, ‘陸德明’은 저자명을, ‘撰’은 저작역할어를 ‘自五經三傳古禮之外 … 綜其實未必然’은 해제를 ‘案’ 이하는 안어(案語)를 각각 가리킨다. 즉, 『서록해제』에 수록된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개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¹⁵⁾와 안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서록해제』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표제표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史記音義 二十卷 唐崇賢館學士劉伯莊撰
唐六典 三十卷 題禦撰 李林甫等奉勅注
春秋加減 一卷 稱元和十三年國子監奉敕定 不著人名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어주(御注)’라는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예:

御注를 冠記한 경우:
御注孝經 一卷 唐孝明皇帝撰并序
御注老子 二卷 徽宗皇帝御製

御注를 冠記하지 않은 경우:

翰墨志 一卷 高宗皇帝御製
聖濟經 十卷 政和御製 辟離學生昭武吳禔注

14) 이들 요소 외에 오늘날의 발행사항과 유사한 저작의 발표년도를 표시한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이는 특수 사례로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요소로 설정하지 않고, 저작년 표시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하였다.

15) 목록기술요소의 분석과정에서 일부 해제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간혹 해제에서 유통되는 서명에 대해 ‘或稱’을 관기하여 또 다른 이름의 서명을 알려준 경우가 있다. 그 외에 표제표시에 있어서 그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金人亡遼錄 二卷 燕山史愿撰 或稱遼國遺事

2.2 권수표시

권수표시는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呂氏家塾讀詩記 三十二卷
春秋左氏經傳集解 三十卷
東坡論語傳 十卷

다만, 그 도서의 서지적 권차 매김이 없는 것은 권수 대신 책수를 표시하고 행을 달리하여 ‘不分卷’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용례로 『매교수서집해(梅教授書集解)』가 있다.

예:

梅教授書集解 三冊
不分卷 不著名 未詳何人

이밖에, 권수표시가 기존 목록에서 표시한 권수표시와 차이 나는 경우, 권수표시를 하고, ‘案’을 관기하여 기존 목록에서 제시한 권수를 표시한 경우도 있다.¹⁶⁾

예:

南塘書說 三卷 案宋史藝文志作二卷
伊川易解 六卷 案文獻通攷宋史藝文志具作十卷

16) 「서록해제」에서는 案 이하의 문장에 대해 소자쌍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 줄로 작은 글자로 기술하였다.

2.3 저자표시

2.3.1 저자의 소속왕조표시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데,

예:
史記 一百三十卷 漢太史令夏陽司馬遷子長撰
廣雅 十卷 魏博士張揖撰
廣韻 五卷 隋陸法言撰
周易釋文 一卷 唐國子博士吳郡陸德明撰

때때로 역조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關子明易傳 一卷 後魏河東關朗子明撰 唐趙葵注
說文解字系傳 四十卷 南唐校書郎廣陵徐鍇楚金撰

그러나 『서록해제』가 편찬된 시기인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의 경우 대개 저자명 앞에 아무것도 관기하지 않고 저자명을 표시하였다.

예:
新經詩義 三十卷 王安石撰
左氏說 三十卷 呂祖謙撰

이밖에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 ‘不詳何代人’, ‘未知何時人’, ‘不知何時人’, ‘未詳何時人’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는데,

예:
周易口訣義 六卷 河南史之徵撰 不詳何代人
開顏集 三卷 校書郎周文規撰 未知何時人
補妒記 八卷 稱京兆王績編 不知何時人
雍裕之集 一卷 唐雍裕之撰 未詳何時人

저자명과 저작의 편찬시대 모두가 불분명할 경우, ‘不知名氏及時代’라고 표시한 사례도 있다.

예:
王氏詩總聞 三卷 不知名氏及時代

2.3.2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다.¹⁷⁾ 각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하는데, 대개 ‘관직명(官職名)+출신지(出身地)+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東坡易傳 十卷
端明殿學士眉山蘇軾子瞻撰
伊川易解 六卷
崇政殿說書河南程頤正叔撰

호 또는 시호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형식에 추가하여 ‘관직명(官職名)+시호(諡號) 또는 봉호(封號)+출신지(出身地)+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易說 三卷 丞相溫公涑水司馬光君實撰
易解 十四卷 丞相荊公臨川王安石介甫撰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출신지(出身地) 또는 본관(本貫)+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周易疑難圖解 二十五卷 三山鄭東卿少梅撰
花譜 二卷 滎陽張岫子堅撰
易本傳 三十三卷 隆山李舜臣子思撰

『서록해제』에서는 위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예:
周易物象釋疑 一卷 唐東陽助撰
孫子 三卷 吳孫武撰
吳子 三卷 魏吳起撰

17) 본 논문의 첫 번째 용례에서만 원전과 동일하게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고, 그 외의 용례에서는 저자명 표시를 표제, 권수 다음에 한 줄로 기술하였다.

이 중에는 앞에서 나온 저자가 뒤에서 다시 나와서, 간략히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축약한 경우도 있다.

예:
易類에서 蘇軾의 저자표시:
東坡易傳 十卷 端明殿學士眉山蘇軾子瞻撰

書類에서 蘇軾의 저자표시:
東坡書傳 十三卷 蘇軾撰

2)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예:
刊誤 二卷 唐國子祭酒李涪撰

이 중에는 앞에서 이미 나온 저자가 뒤에서 재차 나와서, 간략히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의 형식으로 축약한 경우도 있다.

예:
典故類에서 杜佑의 저자표시:
通典 二百卷 唐宰相京兆杜佑君卿撰

雜家類에서 杜佑의 저자표시:
理道要訣 十卷 唐宰相杜佑撰

3) 관작(官爵)이 없는 경우, ‘布衣’를 관기한 경우가 있는데, 성명 앞에 ‘布衣’만 관기한 경우가 있고, ‘出身地+布衣’의 형식으로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乙卯記 一卷 唐布衣李潛用撰
歷代疆域志 十卷 臨川布衣吳澥撰
天象義府 九卷 宜黃布衣應屋撰

이밖에 포의(布衣)인데 벼슬을 추증(追贈) 받은 경우 그 표시를 해 준 경우도 있으며,

예:
歐陽修撰集 六卷 崇仁布衣贈秘閣修撰歐陽澈德明撰

이밖에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사양하거나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에게는 그 인물에 맞추어서 ‘處士’ 또는 ‘隱士’를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皇極經世 十二卷 敘篇系述 二卷 處士河南邵雍堯夫撰
元眞子外篇 三卷 唐隱士金華張志和撰

4)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저자를 표기한 경우도 있고, ‘연호(年號)+어제(御製)’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帝範 一卷 唐太宗撰
聖濟經 十卷 政和御製

5) 명찬서(命撰書)의 경우, ‘관직명+신하명+등+봉조 또는 승조+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詔 또는 承詔+著作役割語)’,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청명+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廳名+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예:

官職名+臣下名+等+奉詔 또는 承詔+著作役割語:
紹興校定本草 二十二卷 醫官王繼先等奉詔撰
政和修定諡法 六卷 禮制局詳議官蔡攸等承詔修定

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唐六典 三十卷 題御撰, 李林甫等奉勅注

年號+年次+官廳名+奉勅+著作役割語
春秋加減 一卷 稱元和十三年國子監奉勅定, 不著人名

또한 서술어를 추가하여, ‘연호+연차+명 또는 조+관직명+신하명+등+서술어(年號+年次+命 또는 詔+官職名+臣下名+等+敘述語)’, ‘연호+연차+명+관직명+신하명+서술어(年號+年次+命+官職名+臣下名+敘述語)’ 등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예:

年號+年次+命 또는 詔+官職名+臣下名+等+敘述語

文苑英華 一千卷 太平興國七年 命學士李昉扈蒙徐鉉宋白等 闕前代文學 撮其精要 以類分之

太平廣記 五百卷 太平興國二年 詔學士李昉扈蒙等修禦覽 又取野史傳記故事小說撰集

年號+年次+命+官職名+臣下名+敘述語

冊府元龜 一千卷 景德二年 命資政殿學士王欽若 知制誥楊億 修曆代君臣事迹

이밖에 저자표시를 먼저 해 준 다음에 해제에서 명찬서임을 밝혀준 경우가 있다.

예:

續通典 二百卷 翰林學士承旨大名宋白太素等撰 咸平三年奉詔 四年九月書成

營造法式 三十四卷 看詳 一卷 將作少監李誠編修 初熙寧中 始詔修定 至元祐六年成書

6)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僧’ 또는 ‘沙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예:

物類相感志 一卷 僧贊寧撰

詩格 一卷 沙門神彧撰

승(僧)이나 사문(沙門) 이란 표시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최고의 학승(學僧)을 일컫는 경칭인 ‘三藏’을 관기하거나, 출신지 또는 출신국을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金剛般若經 一卷 姚秦三藏鳩摩羅什譯

華嚴經 八十一卷 唐于闐實叉難陀譯

圓覺了義經 十卷 唐闍賓佛陀多羅譯

7)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金樓子 十卷 梁元帝繹世誠爲湘東王時所述也
曆代年號并宮殿等名 一卷 丞相饒陽李昉明叔在翰苑時所纂
系辭精義 二卷 呂祖謙集程氏諸家之說
杜公談錄 一卷 雷澤杜師益等錄其父務滋之言
孔叢子 七卷 孔氏子孫雜記其先世系言之書也

8) 여성 저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였다. 부녀자인 경우는 남편의 성명을 적은 다음에 ‘妻’ 자를 적고 그녀의 이름(名)을 기입한 경우가 있고,

예:

女誠 一卷 漢曹世叔妻 班昭撰

성씨 앞에 본관을 기입한 경우도 있으며,

예:

閨秀集 二卷 建安徐氏撰

성명 앞에 ‘妓女’라는 여자의 신분을 밝힌 경우도 있고,

예:

薛濤集 一卷 唐成都妓女薛濤撰

여자 도사를 일컫는 ‘女冠’이란 존칭을 붙인 경우도 있고,

예:

李季蘭集 一卷 唐女冠

‘호+성+씨+명(號+姓+氏+名)’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예:

漱玉集 一卷 易安居士李氏清照撰

서술형으로 모인(某人)의 딸 또는 모인(某人)의 누이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기입하고 있다.

예:

處士女王安之集 一卷 簡池王亢子倉之女
女郎謝希孟集 二卷 閩人謝景山之妹

9) 서점에서 편집한 경우, 서점을 의미하는 ‘書坊’에서 간행된 책이라고 밝혀 주고 있다.

예:

指南賦箋 五十五卷 指南賦經 八卷 皆書坊編集時文
孝宗聖政 十二卷 亦書坊鈔節

10) 저자명 자리에 소장처를 알려 준 경우도 있다.

예:

太宗御製御書目 一卷 玉辰殿所藏

11) 세간에 알려진 저자명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대개 ‘稱’자를 관기하여 세간에서 전하는 저자명을 기술한 다음, ‘不著名氏’, ‘不著姓’, ‘未詳何人’, ‘未知何人’, ‘不知何人’, ‘莫知何人’ 등을 부기한 경우도 있으며,

예:

衛濟寶書 一卷 稱東軒居士 不著名氏
國老閒談 二卷 稱夷門君玉撰 不著姓
周易義類 三卷 稱顧叔思撰 未詳何人
窓間紀聞 一卷 稱陳子兼撰 未知何人
山齋愚見十書 一卷 稱灌圃耐得翁 不知何人
壺中賦 一卷 稱紫雲溪壺中子 莫知何人

세간에 알려진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 꼭 그렇지 않다는 말인 ‘未必然’을 부기하거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말인 ‘莫知何人’, ‘未詳何人’을 부기한 경우도

있으며,

예:

艾子 一卷 相傳爲東坡作 未必然也
地理小 原本缺 一卷 稱李淳風 亦未必然
金碧上經古文龍虎傳 長白山人元陽子注 皆莫知何人
風騷要式 一卷 徐衍述 亦未詳何人

저자표시를 일부만 한 다음에 ‘原注失其名’, ‘原闕’이라고 소자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陵園記 一卷 唐宗正丞李 原注失其名 撰
詩評 一卷 桂林僧 原闕 淳撰

12) 저자명을 모를 경우에는 서명을 나열한 다음에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于武陵集 一卷
周憤集 一卷
陳光集 一卷
劉威集 一卷
以上皆唐人

저자명 대신 저자의 신분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棲白集 一卷
脩睦東林集 一卷
尙顏供奉集 一卷
皆唐僧

13)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不著名氏’, ‘不知何人作’, ‘不知何人集’, ‘不知作者’, ‘不知集者’, ‘不知何人所錄’, ‘不知何人所集’, ‘不知其名’, ‘無名氏’, ‘不著撰

者名氏’, ‘不著作者’, ‘不著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는데,

예:

- 鍾鼎篆韻 一卷 不著名氏
- 易正誤 一卷 不知何人作
- 歷代確論 一百一卷 不知何人集
- 醫門玉髓 一卷 不知作者
- 唐類表 二十卷 不知集者
- 龜山別錄 二卷 不知何人所錄
- 十書類編 三卷 不知何人所集
- 許先生十二時歌 一卷 不知其名
- 詩三話 一卷 無名氏
- 春秋公羊傳疏 三十卷 不著撰者名氏
- 傷寒微旨論 二卷 不著作者
- 漢東王氏小兒方 三卷 不著名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라도,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의 성명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자의 소속왕조 또는 연호를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 祝融子兩同書 二卷 不著名氏 中興書目云唐吳筠撰
- 雜句圖 一卷 不知何人所集 皆本朝人詩也
- 聞奇錄 一卷 不著名氏 當是唐末人
- 枕中記 一卷 不著名氏 崇寧中人

14) 저자명이 기존 목록과 차이가 있거나, 원본에 누락되어 교감한 경우, 저자 명표시를 한 다음에 ‘案’을 관기하여 그 조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¹⁸⁾

예:

- 周易口訣義 六卷 河南史之徵撰 案宋史藝文志作史文徵 文獻通攷作史證 鄭樵通志作史之徵 宋人避諱徵字 此改從其舊
- 禮記解 二十卷 新安方慤性夫撰 案此句原本脫 今校補
- 春秋邦典 二卷 唐旣濟潛亨撰 案原本脫濟字 今據宋史藝文志增入
- 續後漢書 四十二卷 廬陵貢士蕭常撰 案原本脫此句 今據文獻通攷校補

18) 『서록해제』에서는 案 이하의 문장에 대해 소자쌍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 줄로 글자만 약간 작게 표시하였다.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표시

저작역할어는 ‘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注’, ‘編’, ‘纂’, ‘集’, ‘錄’, ‘補注’, ‘集注’, ‘編次’, ‘編進’, ‘編集’, ‘校定’, ‘校正’, ‘增補’, ‘重修’, ‘語’, ‘譯’, ‘解’, ‘箋’, ‘上’, ‘進’, ‘撰進’, ‘撰定’, ‘集進’, ‘編修’, ‘修纂’, ‘修定’, ‘刪定’, ‘纂輯’, ‘撰集’, ‘傳’, ‘集次’, ‘潤色’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

예:

周易物象釋疑 一卷 唐東陽助撰
歸藏 三卷 晉太尉參軍薛貞注
六經圖 七卷 東嘉葉仲堪思文重編
曆代宮殿名 一卷 翰林承旨李昉等纂
六祖壇經 一卷 僧法海集
米氏譜 一卷 奉直大夫米憲錄
後漢志 三十卷 晉秘書監河內司馬彪紹統撰 梁刻今平原劉昭宣卿補注
史記 一百三十卷 漢太史令夏陽司馬遷子長撰 宋南中郎參軍河東裴駰
集注
尚書精義 六十卷 三山黃倫彝卿編次
救荒活民書 三卷 從政郎鄱陽董煟編進
皇朝事類樞要 二百五十卷 蜀人張和卿編集
風後握奇經 一卷 永嘉薛士龍季宣校定
太平惠民和劑局方 六卷 庫部郎中陳師文等校正
肘後百一方 三卷 晉葛洪撰 梁陶隱居增補
太祖實錄 五十卷 監修國史肥鄉李沆太初 史官集賢院學士河南錢若水
淡成等重修
大慧語錄 四卷 僧宗杲語 其徒道謙所錄
維摩詰所說經 一卷 鳩摩羅什譯
鷓鴣子 三卷 陸佃解
毛詩 二十卷 毛詩故訓傳 二十卷 漢河間王博士趙人毛公撰 後漢大司農
鄭康成箋
續會要 三百卷 監修仙井虞允文并甫等上
欽宗實錄 四十卷 乾道四年修撰洪邁等進
靈樞道言發微 二卷 朝議大夫致仕傅燮撰進
崇文總目 一卷 景祐初 學士王堯臣同聶冠卿 郭纘 呂公綽 王洙 歐陽修等
撰定

百將傳 十卷 清河張預集進
營造法式 三十四卷 看詳 一卷 將作少監李誠編修
三朝訓鑒圖 十卷 學士李淑 楊偉等修纂
閣門儀制 十二卷 學士李淑等修定
元豐九域志 十卷 知制誥丹陽王存正仲 集賢校理南豐曾肇子開 官制所
檢討邯鄲李德芻等刪定
括蒼集 三卷 後集 五卷 別集 四卷 續 一卷 郡人吳飛英 陳百朋相繼纂輯
孝史 五十卷 太學博士新喻謝諤昌國撰集
尚書 十二卷 尚書注 十三卷 漢諫議大夫魯國孔安國傳
周子通書遺文遺事 一卷 侍講朱熹集次
秦傳玉璽譜 一卷 題博陵崖逢修 協律郎嚴士元重修 河中少尹魏德謨
潤色

이밖에 저작역할어를 서술적 문장형태로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所編’, ‘所述’, ‘所記’, ‘所纂’, ‘所集’, ‘所校’, ‘所定’, ‘所說’, ‘所書’, ‘所傳’, ‘所編集’, ‘所刪定’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

國朝會要總類 五百八十八卷 李心傳所編
春秋古經 一卷 禮部侍郎眉山李燾仁父所述
溫公日記 一卷 司馬光熙寧在朝所記
天下郡望氏族譜 一卷 唐李林甫等天寶八年所纂
通書西銘集解 三卷 戶部侍郎新昌王夢龍慶翔所集
校定杜工部集 二十二卷 秘書郎黃伯思長睿所校
古易 十二卷 音訓 二卷 著作郎東萊呂祖謙伯恭所定
遺教經 一卷 佛涅槃時所說
維摩經 一卷 蘇轍所書
孔子家語 十卷 孔子二十二世孫猛所傳
綸言集 三十一卷 宇文粹中 虛中兄弟所編集
唐令 三十卷 式 二十卷 唐開元中宋璟 蘇頌 盧從愿等所刪定

2.5 저작년표시

이 저작년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사항이다.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한 것(상기 2.3.1 참조)으로 저자에 대한 설명인데 비해, 이 저작년표시는 그 연도가 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책 자체에 대한 내용, 즉, 책의 발행년과 같은 성격을 띤 발표시점 또는 공표시점을 표시한 사례인 것이다. 이 경우 역조명 대신 연호로 표시하였다. 이 저작년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다음에 표시하였는데, 간혹 저자명 앞에 표시한 경우도 있다.

2.5.1 저작년을 저자명 다음에 표시한 경우

이 경우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연호를 부기하여 그 발표시점을 알려 준 경우가 있으며,

예:
古文孝經說 一卷 翰林學士成都范祖禹淳甫撰 元佑二年經筵所進
紹興校定本草 二十二卷 醫官王繼先等奉詔撰 紹興二十九年上之
唐餘錄史三十卷 直集賢院益都王皞子融撰 寶元二年上
開禧曆 三卷 立成 一卷 大理評事鮑澣之撰進 時開禧三年

책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예:
續通典 二百卷 翰林學士承旨大名宋白太素等撰 咸平三年奉詔 四年九月書成
徽宗實錄 一百五十卷 監修宰相湯思退等上 自紹興七年詔修 十一年先成
六十卷 至二十八年書成
續會要 三百卷 監修仙井虞允文并甫等上 自紹興十年編修, 起元豐元年 迄靖
康之末 乾道六年書成

서문의 작성 연도를 표시해준 경우도 있다.

예:
職林 二十卷 集賢院學士錢唐楊侃撰 咸平二年所序 有胡昉者 明道二年作後序
乾生歸一圖 十卷 英州石汝礪撰 嘉右元年序
長樂志 四十卷 府帥清源梁克家叔子撰 淳熙九年序

2.5.2 저작년을 저자명 앞에 표시한 경우

저작년표시는 대개 저자명 뒤에 나오지만, 이 경우는 간혹 저자명 앞에 연호를 관기하여 저작의 발표년도를 표시한 사례를 말한다.

예:
欽宗實錄 四十卷 乾道四年 修撰洪邁等進
孝宗實錄 五百卷 嘉泰二年 修撰傅伯壽等撰進

이때,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호 앞에 ‘稱’을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春秋加減 一卷 稱元和十三年國子監奉勅定 不著人名

2.6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공저자인 경우,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예:
古禮疏 五十卷 唐弘文館學士臨洛賈公彥等撰
六家諡法 二十卷 翰林學士判太常寺周沆等編
景右天竺字源 七卷 僧惟淨等集進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晉少帝實錄 二十卷 監修竇正固 史官賈緯 王仲 竇儼等撰
哲宗實錄 一百五十卷 監修趙鼎 史官范冲等重修
三朝訓鑒圖 十卷 學士李淑 楊偉等修纂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等撰’ 또는 ‘等共爲之’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毛詩正義 四十卷 唐孔穎達與王德詔等撰
尙書正義 二十卷 唐孔穎達與博士王德詔等共爲之

3) 이밖에 ‘等’ 자를 쓰지 않고,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저작역할어를 붙인 경우도 있다.

예:
論語筆解 二卷 唐韓愈退之 李翱習之撰
英宗實錄 三十卷 學士壽春呂公著晦叔 長社韓維持國 知制誥浦城吳充 冲卿撰

2.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尙書大傳 四卷 漢濟南伏勝撰 大司農北海鄭康成注
金匱要略 三卷 張仲景撰 王叔和集 林億等校正
元包 十卷 唐衛元嵩撰 秘書少監武功蘇源明傳 四門助教趙郡李江注
周髀算經 二卷 音義 一卷 題趙君卿注 甄鸞重述 李淳風等注釋

2.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나온 경우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의 저록으로 설정하고,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한 다음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며,

예:
易類:
新注周易 十一卷 卦德統論 一卷 略例 一卷 又 易數鉤隱圖 二卷
太常博士劉牧長民撰

그 서적들을 별개의 저록으로 설정한 다음 각각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으며,

예:
曆象類:
乙巳占 十卷 唐太史令岐陽李淳風撰
玉歷通考經 三卷 李淳風撰

그 서적들을 독립적인 저록으로 설정하여 서명을 모두 열기한 다음, 맨 마지막 서적에서 ‘以上몇種皆’를 관기하여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으며,

예:
陰陽家類:
陰陽二遁圖局 一卷 并雜訣
三元立成圖局 二卷
遁甲八門機要 一卷
太一淘金歌 一卷
以上四種皆無名氏

동일저자의 대표저작에 대해서만 별도의 저록으로 설정하여 저자표시를 해주
고, 그의 나머지 저작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저록으로 구분한 다음에 ‘以上몇種亦
皆’라고 관기하고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도 있다.

예:
雜藝類:
藥石論 一卷 唐昇州司馬張懷瓘撰
六體論 一卷
書斷 三卷
書估 一卷
論書 一卷
以上四種亦皆張懷瓘撰

2.6.4 특정서적의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이 나온 경우

특정서적과 관련된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과 같이 보유
적 성격을 띤 저작이 나오는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며,

예:
括蒼集 三卷 後集 五卷 別集 四卷 續 一卷 郡人吳飛英 陳百朋 相繼纂輯

별도의 저자표시는 하지 않고, 해제에서 해당 저작의 저자에 대해 설명해 준 경우도 있다.

예:

天台集 二卷 別編 一卷 續集 三卷 初李庚子長集本朝人詩爲二卷 未行
太守李兼孟達得之 又得郡士林師箴所輯前代之作 爲賦二 詩二百 乃
以本朝人詩爲續集而并刻焉 別編則師箴之子表民所補也

3. 결 론

본 논문은 중국 남송(南宋)의 대장서가이자 목록학자인 직재 진진손(直齋陳振孫, 1186?-1262?)이 편찬한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록해제」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였다. 각 저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에 해제와 안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제표시는 어제서(御製書)에 대해 ‘어주(御注)’라는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간혹 해제에서 유통되는 서명에 대해 ‘혹칭(或稱)’을 관기하여 서명을 밝힌 경우가 있었다.

권수표시는 완질(完帙)의 권수표시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의미하였다. 다만, 그 도서의 서지적 권차 매김이 없는 것은 권수 대신 책수를 표시하고 행을 달리하여 ‘不分卷’이라고 설명했으며, 권수표시가 기존 목록에서 표시한 권수표시와 차이가 나는 경우, ‘案’을 관기하여 기존 목록에서 제시한 권수를 소자쌍행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저자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표시와 저자명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했으며,

후위(後魏), 남당(南唐)과 같이 역조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록해제』가 편찬된 시기인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의 경우 대개 저자명 앞에 아무것도 관기하지 않았으며,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 ‘불상하대인(不詳何代人)’, ‘미상하시인(未詳何時人)’, ‘미지하시인(未知何時人)’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대개 ‘관직명(官職名)+출신지(出身地)+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고, 호 또는 시호가 있는 경우 여기에 추가하여 ‘관직명(官職名)+시호(諡號) 또는 봉호(封號)+출신지(出身地)+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출신지(出身地) 또는 본관(本貫)+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 ‘성+명(姓+名) 또는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기술하였는데, 이 중에는 앞에서 이미 나온 저자가 뒤에 다시 나와서 이런 방식으로 축약한 경우도 있었다. 2) 관작(官爵)이 없는 경우, 포의(布衣)를 관기한 경우가 있었고,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사양하거나 벼슬을 그만 두고 강호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에게는 그 인물에 맞추어서 ‘처사(處士)’ 또는 ‘은사(隱士)’를 관기해 준 경우도 있었다. 3)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저자를 표기한 경우도 있었고, ‘연호(年號)+어제(御製)’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4) 명찬서(命撰書)의 경우, ‘관직명+신하명+등+봉조 또는 승조+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詔 또는 承詔+著作役割語)’,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청명+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廳名+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는데, 서술어를 추가하여, ‘연호+연차+명 또는 조+관직명+신하명+등+서술어(年號+年次+命 또는 詔+官職名+臣下名+等+敍述語)’, ‘연호+연차+명+관직명+신하명+서술어(年號+年次+命+官職名+臣下名+敍述語)’ 등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5)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대개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승(僧)’ 또는 ‘사문(沙門)’이라고 관기하였는데 간혹 그 자리에 최고의

학승을 일컫는 경칭인 ‘삼장(三藏)’을 관기하거나, 출신지 또는 출신국을 관기한 경우도 있었다. 6)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 7) 여성 저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였다. 부녀자인 경우는 남편의 성명을 적은 다음에 ‘처(妻)’ 자를 적고 그녀의 이름(名)을 기입한 경우가 있고, 성씨 앞에 본관을 기입한 경우도 있으며, 성명 앞에 ‘기녀(妓女)’라는 여자의 신분을 밝힌 경우도 있고, 여자 도사를 일컫는 ‘여관(女冠)’이란 존칭을 붙인 경우도 있고, ‘호+성+씨+명(號+姓+氏+名)’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서술형으로 모인(某人)의 딸 또는 모인(某人)의 누이 등의 형식으로 기입하는 등 다양하게 기입하였다. 8) 서점에서 편집한 경우, 저자명 자리에 서점을 의미하는 ‘서방(書坊)’에서 간행된 책이라고 밝혀주었으며, 9) 저자명 자리에 소장처를 알려 준 경우도 있었고, 10) 세간에 알려진 저자명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대개 ‘칭(稱)자’를 관기하여 세간에서 전하는 저자명을 기술한 다음 ‘부저명씨(不著名氏)’, ‘미상하인(未詳何人)’, ‘미지하인(未知何人)’ 등을 부기한 경우도 있었고, 세간에 알려진 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미필연(未必然)’ 또는 ‘막지하인(莫知何人)’, ‘미상하인(未詳何人)’을 부기한 경우도 있었다. 11) 저자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서명을 나열한 다음에 어느 시대의 사람 또는 저자의 신분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12)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명씨(不著名氏)’, ‘부지하인작(不知何人作)’, ‘부지하인집(不知何人集)’, ‘부지작자(不知作者)’, ‘부지집자(不知集者)’, ‘부지하인소록(不知何人所錄)’, ‘부지하인소집(不知何人所集)’, ‘부지기명(不知其名)’, ‘무명씨(無名氏)’, ‘부저찬자명씨(不著撰者名氏)’, ‘부저작자(不著作者)’, ‘부저명(不著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3) 저자명이 기존 목록과 차이가 있거나, 원본에 누락되어 교감한 경우, 저자명표시를 한 다음에 ‘案’을 관기하여 그 조사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역할어표시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외에 ‘주(注)’, ‘편(編)’, ‘찬(纂)’, ‘집(集)’, ‘록(錄)’, ‘보주(補注)’, ‘집주(集注)’, ‘편차(編次)’, ‘편진(編進)’, ‘편집(編集)’, ‘교정(校定)’, ‘교정(校正)’, ‘증보(增補)’, ‘중수(重修)’, ‘어(語)’, ‘역(譯)’, ‘해(解)’, ‘전(箋)’, ‘상(上)’, ‘진(進)’, ‘찬진(撰進)’, ‘찬정(撰定)’, ‘집진(集進)’,

‘편수(編修)’, ‘수찬(修纂)’, ‘수정(修定)’, ‘산정(刪定)’, ‘찬집(纂輯)’, ‘찬집(撰集)’, ‘전(傳)’, ‘집차(集次)’, ‘윤색(潤色)’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이밖에도 저작역할어를 ‘소편(所編)’, ‘소술(所述)’, ‘소기(所記)’, ‘소찬(所纂)’, ‘소집(所集)’, ‘소교(所校)’, ‘소정(所定)’, ‘소설(所說)’, ‘소서(所書)’, ‘소전(所傳)’, ‘소편집(所編集)’, ‘소산정(所刪定)’ 등과 같이 서술적 문장형태로 다양하게 기술하였다.

저작년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사항이었다. ‘저자의 소속왕조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여 저자를 설명해 주는데 비해, 저작년표시는 그 연도가 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책 자체에 내용, 즉, 책의 발행년과 같은 성격을 띤 발표시점 또는 공표시점을 표시한 사례였다. 이 경우 역조명 대신 연호로 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저자표시를 다 마친 다음에 기술했으며, 간혹 저자명 앞에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1)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 보면,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등찬(等撰) 또는 등공위지(等共爲之)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밖에 ‘등(等)’ 자를 쓰지 않고,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저작역할어를 붙인 경우도 있었다. 2)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었다. 3)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한 다음 저자표시를 한 경우, 그 서적들을 별도의 저록으로 설정하여 각각 저자표시를 한 경우, 그 서적들을 별도의 저록으로 설정하여 서명을 모두 열기한 다음 맨 마지막의 서적에서 ‘이상몇종개(以上 몇種皆)’를 관기하여 저자표시를 한 경우, 동일저자의 대표저작에 대해서만 별도의 저록으로 설정하여 저자표시를 해주고 그의 나머지 저작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저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상몇종역개(以上 몇種亦皆)’라고 관기하고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었다. 4)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과 같이

보유적 성격을 띤 저작이 나오는 경우, 이들 저작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었고, 별도의 저자표시는 하지 않고 해제에서 해당 저작의 저자에 대해 설명해 준 경우도 있었다.

이 「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을 고구하면서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이 편찬한 장서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3세기 중국의 목록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은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唐潔, 戴永恒. “從小序看陳振孫『直齋書錄解題』的繼承與發展.” 『六盤水師範學院學報』 25(5)(2013. 10). 10-13.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潘遠璫. “『直齋書錄解題』研究綜述.” 『貴圖學刊』 1(2014. 1). 65-66.
-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499-521.
- 徐滢修. 『明皇全集』 <<http://db.itkc.or.kr>>.
-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http://db.itkc.or.kr>>.
- 王文龍. “試評『直齋書錄解題』的學術價值.” 『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5(2)(2005. 5). 24-27.
- 王曉慧. “『直齋書錄解題』“解題”成就淺議.” 『科學大眾·科學教育』 721(2013. 3). 149.
-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23(1)(2003. 2). 72-74.
- 俞 淑. “『直齋書錄解題』簡介.” 『青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1988. 4). 67.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http://db.itkc.or.kr>>.
- 李德懋. 「青莊館全書」<<http://db.itkc.or.kr>>.
- 李明傑. “「直齋書錄解題」的版本學成就探析.” 「圖書館」 6(2005. 6). 47-50.
- 李靜, 閔鳳娟. “「中興館閣書目」對「直齋書錄解題」的影響分析.” 「圖書館學研究」 22(2013. 11). 98-101.
- 張守衛. “四庫輯本「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理論與實踐」 6(2012. 6). 33-38.
- 張守衛. “論「直齋書錄解題」分類思想.” 「圖書情報工作」 55(21)(2011. 11). 137-142.
- 張守衛. “盧文弨「新訂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雜誌」 29(4)(2010. 4). 77-80.
- 張守衛. “上海古籍本「直齋書錄解題」評述.” 「圖書館理論與實踐」 11(2009. 11). 61-64.
- 張守衛. ““互著”, “別裁”兼用始於「直齋書錄解題」.” 「圖書情報工作」 53(11)(2009. 6). 142-145.
- 張守衛. “論「直齋書錄解題」著錄的內容和價值.” 「大學圖書情報學刊」 25(5)(2007. 10). 83-89.
- 張學軍. “我國私家目錄學史上的雙璧 - 「郡齋讀書誌」與「直齋書錄解題」.” 「圖書館學刊」 5(2007. 5). 123-125.
- 丁宏宣. “南宋著名藏書家陳振孫及其「直齋書錄解題」.” 「圖書情報論壇」 23(1994. 3). 73-74.
- 丁若鏞. 「茶山詩文集」<<http://db.itkc.or.kr>>.
- 丁瑜. “試論「直齋書錄解題」在目錄學史上的影響.” 「寧夏圖書館通訊」 1(1980. 1). 23-27.
- 正祖. 「弘齋全書」<<http://db.itkc.or.kr>>.
- 趙子夫. “陳振孫「直齋書錄解題」的目錄學思想初探.” 「圖書館工作與研究」 8(2012. 8). 87-89.
- 主父誌波. “「直齋書錄解題」補正.” 「圖書館理論與實踐」 10(2009. 10). 52-53.
- 朱湘銘. “「直齋書錄解題」斷句錯誤一則.” 「圖書館雜誌」 4(2006. 4). 79-80.
- 朱天助. “「直齋書錄解題」宋蘭揮藏本考略.” 「中國典籍與文化」 90(2014. 3). 83-88.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5冊. 北京: 中華書局, 198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許殿才.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遼寧大學學報』 83(1987. 1). 65-66.

胡昌鬥. “一部不可多得的私家目錄－『直齋書錄解題』初探.” 『江蘇圖書館學報』 6(1987. 6). 43-46.

黃燕婉. “『四庫全書總目』誤引『直齋書錄解題』訂正十七則.” 『四川圖書館學報』 184(2011. 6). 94-96.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韓致胤. 『海東釋史』 <<http://db.itkc.or.kr>>.

<<http://baike.baidu.com>>.

